지구환경위기와 소비풍조

박영숙
(한국환경 ·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지난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일본, 한국 여성 환경인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대안'을 주제로 동북아시아 여성환경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전체주의 체제 하에 있었던 중국에는 민간 단체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중국의 여성 환경 운동의 현황, 과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토론 발제를 한 리아오 쉐리라는 중견 여성은 〈북경지구촌 환경 문화 센터〉라는 민간단체의 회장이다. 중국에서는 드물게 보는 민간 활동가이다. 그는 이 회의의 첫 토의 순서에서 30분간의 발표를 마치자 귀국해야 하리만큼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여성 환경운동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환경운동을 위한 풀뿌리 운동가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발표 내용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골자는 중국이 자유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13억 중국인의 소비풍조에 대한 우려였다. 거의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인구 문제와 소비 문제는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의제이다. 얼마 전까지 자원 소비가 적었던 중국의 13억 인구가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의 최저생활자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4-5개의 지구가 더 있어야 한다는 비유는 오늘의 소비 행태를 걱정하는 자리에서 들어오던 터였다.

리아오 쉐리 회장의 마지막 말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가 오늘의 소비 추세를 멈추지 않는 한 20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0개의 지구를 가질 수 없는 오늘의 인류는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소비 태도에 대한 현 세대인의 자성을 촉구하며 의식 혁명을 주창한 것이다. 늘 환경인들이 하는 말이었지만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처럼 욕망의 고삐가 풀렸다는 중국에서 온 여성에게서 듣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가 크게 달리 다가왔다.

최근 분출하고 있는 "인류는 언제까지 '발전'을 향유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에서 일본의 지구물리학자인 야스다 요시노리 교수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건데 새로운 혁명이란 대혼란을 겪지 않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대혼란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된다. 예를 들어 중국이 현 추세로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 2025년이 되면 1억 7,5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고 있는 세계의 곡물의 총생산량은 1999년 수준에서 19억 톤인데 그중의 2억 톤만이 수출이 가능한 양이다. 그 수출분 전량을 중국이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와 다른 발전도상국

들에게 식량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식량 위기의 환경난민을 예상하게 한다. 굶주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이나 대학살을 감행해서 경쟁자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혼란을 겪어야 리아오 회장을 비롯한 세계인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 이후 인류의 21세기의 명제로서 뿌리내리고 있는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회의에서의 쟁점은 선진국의 생활 수준과 발전도상국의 인구 증가 문제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의 생활 수준을 문제삼는가 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인구 증가 문제를 제기하며 서로의 고집을 꺾지 않는 데서 환경 개선의 돌파구는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의 하나뿐인 지구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같이하면서 실천사항의 합의 도출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마다의 자국의 이익과 입장에서 한치 양보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는 하나인데 세상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지구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지구 환경은 위기에 다가가고 있다.

20%의 세계 인구가 80%의 지구 자원 소모를 고집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80%의 인구는 생존을 위해서 또는 선진국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들 모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서 남북간의 국가간의 이해 대립은 첨예해지기 마련이다. 오늘의 국제 정치 체제 및 경제 구조에 의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로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는 세계 도처에서 대립 현상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에서는 동서냉전이 남북전쟁으로 이전되어 핵전쟁이 아닌 지구 생태계의 보복인 환경 재앙으로 인류는 파멸 위기에

놓이게 됐다. 내년도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세계지구정상회의의 주제를 빈곤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가 빈부격차 문제 해소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월드 워치(World Watch)에 의하면 1992년도 세계의 소비계층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을 다소비층 20% 중간층 60% 그리고 빈곤층 20%로 보고 있다. 20%의 다소비층은 생존을 위한 자원의 절대 필요량을 얻지 못하고 있는 20%의 빈곤층보다 자원을 수십 배 또는 수백 배를 소비하고 있다. 자원다소비층은 GNP 7,500불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자원 다소비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구의 부담을 많이 주는 나라로서는 세계 8위, 반면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나라로서는 96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은 소비재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거기에 더해서 인구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빈곤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양식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의에서 180여 개 국의 국가 수장들(우리나라 국무총리 참여)에 의해 합의된 21세기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40장으로 되어 있는 행동 계획인 '유엔 의제 21'의 제4장에서 촉구하고 있는 생산과 소비 양식 변화의 실현이 절실하다. 리우+5라고 불리고 있는 1997년도에 개최된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의제 21의 5년간의 실천성과 평가에서 가장 부진한 사항으로 제4장이 지적된 것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과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식과 행동이 연계되지 않은 결과이다.

오늘의 지구 환경 문제가 아무리 거창하고 복잡해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활인들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친환경적인 생활 수칙을 준수하는 데서 풀리는 것이다. 그것은 각기 선 자리인 가정이나 일터에서 작은 실천인 물 한 컵, 전기 한 등, 종이 한 장, 아끼는 것을 비롯해 쓰레기 처리 등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문제를 발생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요즈음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무심코 버리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의 값이 8조 원인데 그만한 돈으로는 40개의 월드컵 경기장과 3개 노선의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폐기물 수집 트럭 위에 던져지는 폐기물 봉투가 터지면서 지폐가 쏟아지는 공익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그 8조 원이라는 금액에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폐기물이 환경 영향에 미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지구 한편에서는 음식물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기아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현재로서는 식량 부족이 아니라 분배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게놈』의 저자로 알려진 매트 리들리의 '이타적 유전자'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최재천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가 요사이 우리 사회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능케 한다는 이타적 유전자 결핍으로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

기아로 피골이 상접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고사하고 지척간의 우리나라 북반부의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비합리성에 우리 자신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남아도는 식량 보관이 문제되어 쌀 생산을 감축해야 할 처지에 있다

고 한다. 이런 가운데 식량 부족 문제 제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나 세계는 지금 중국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필두로 앞으로 다가올 식량 위기로 인한 대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 자원,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에 있어서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강자들에 의한 패권주의와 약자탄압은 뜻하지 않은 사태를 초래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지난 12일 밤에 발생한 미국에서의 1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낸 사상 최악의 동시 다발 테러에 의한 대참사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경악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점차 진정되면서 많은 것을 생각케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국민이 처음으로 전쟁에서나 실감할 수 있는 참담함을 경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선망하고 추종하려는 목표였던 최고의 그리고 최강의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에 대한 자부심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이었다. 지난 세기를 통해 끝이 보이지 않는 욕망 충족을 향해 앞뒤의 보살핌도 외면한 채 질주하고 있는 인류에게 이번 계기는 '일단 정지'의 명령과도 같다.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탑이 무너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 사건의 의미가 작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 첫 발자국은 인간의 오만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강자의 논리에 의한 인간의 자연 지배, 인간의 인간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느님과 인간 간의, 인간과 자연 간의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서 지구 환경의 위기, 인간 문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현 세대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